

# 베어버리기 아까운 山野의 조경수 10선 (2)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 2. 산초나무와 그 형제들

### ▪ 다시 볼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가끔 골프코스 작업로나 카트로 주변 산기슭에 가시 뚫친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를 볼 수 있다. 이들 두 나무는 가시가 있어 다루기가 좀 성가시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어서 오가는 길에 있어도 눈여겨보지를 않는다. 별 관심도 없거니와 통행에 불편을 주기라도 하면, 쓸모없는 잡관목으로 취급하여 송두리째 베어버리거나 캐내기 십상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가치를 알고 나면 선뜻 낫으로 베거나 삽으로 캐내지는 못할 것이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자연에서 얻는 고급 향신료 나무로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도 각광받는 중요 수출 작목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산초나무와 초피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걸맞은 나무로 취급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길가에서 흔히 만나는 성가신 가시나무가 아니라 고소득 작물, 높은 가치의 조경수, 집중 관리하는 향신료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 (1) 산초나무

#### ① 계통과 분포

- 학명 :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 영명 : Mastic-leaf prickly ash
- 한명 : 崖椒(언덕 애. 후추 초 또는 산초나무 초), 山椒(되 산. 후추 초)
- 분포 : 우리나라 전역 산야, 중국, 대만, 일본



산초나무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산야에 자생하는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쥐손이풀목(Geraniales) 운향과(Rutaceae, 열대~아열대에 분포하는 나무로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재배되는 굴나무가 대표적이다.) 초피나무屬(*Zanthoxylum*)의 낙엽활엽관목이다.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자료에 따르면 피자식물門(Angiospermae), 쌍자엽식물綱(Dicotyledoneae), 운향목(Rutales), 운향과(Rutaceae), 초피나무屬(*Zanthoxylum*)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초피나무屬(산초나무屬)에는 기본종, 변종과 품종이 있다. 기본종에는 산초나무, 개산초나무, 초피나무, 왕초피나무가 있다. 변종(變種, variety, 변이된 종으로서 분류학상 종 아래 단위의 종, 라틴어 *varietas*의 약자 *var.* 또는 *v.* 로 표시한다.)에는 산초나무에서 변이된 민산초와 전주산초가 있다. 품종(品種, forma,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위로 *for.* 또는 *f.* 로 표시한다.)에는 좀산초와 털초피가 있다.

산초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야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낙엽넓은잎키작은나무)이고 개산초는 전남과 경상도의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상록활엽관목(늘푸른넓은잎키작은나무)이다. 자료에 의하면 동해안에서는 개산초가 경북 울진군 소재 성류굴 암벽에까지 자란다고 한다.

산초와 개산초나무의 다른 점은 개산초나무는 ㉠ 잎이 겨울에도 녹색을 유지하는 상록활엽관목이고 ㉡ 엽병이나 새 가지에 날개가 있다(산초나무에도 날개가 있으나 폭이 좁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가시는 엽병과 새 가지의 기부에서 1쌍씩 대생하며 산초나무보다 길고 납작하며 굵다. ㉣ 산초나무 잎은 13~21장인데, 개산초는 3~7장이다. 또 ㉤ 산초나무 꽃은 산방화서인데, 개산초나무는 총상화서~복총상화서이다.

■ 표1. 산초나무속 기본종과 변 · 품종

기본종	변종, 품종
▪ 산초나무, <i>Z. schinifolium</i> S. et Z.	· 민산초, <i>Z. schinifolium</i> var. <i>inermis</i> T. Lee · 전주산초, <i>Z. schinifolium</i> var. <i>subinormis</i> T. Lee · 좀산초, <i>Z. schinifolium</i> f. <i>microphylla</i> T. Lee
▪ 개산초나무, <i>Zanthoxylum planispinum</i> S. et Z.	
▪ 왕초피나무, <i>Z. coreanum</i> Nak.	
▪ 초피나무, <i>Z. piperitum</i> A. P. Dc.	· 털초피, <i>Z. piperitum</i> f. <i>pubescens</i> T. Lee

## ② 형태적 특징

### ■ 수형, 줄기와 가지 - 원개형 수형

산초나무는 수고 3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지제부(地際部, soil surface, 토양과 접하는 줄기부위)에서 여러 대의 줄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대의 줄기로 자라다가 중간부위에서 가지가 갈라져 정단부가 다소 평평한 원주형~원개형 수형을 이룬다.

수피는 회녹색~회갈색이고 밋밋한 편이나 세로로 열게 갈라진다. 가시는 어긋나기(호생)하는데 길이 3~5mm 정도로 짧은 편이다. 줄기나 묵은 가지의 가시는 기부가 나이트처럼 둥글게 볼록해져 압정처럼 보인다. 굵은 줄기의 가시는 탈락되기도 하여 군데군데 톨은 흔적이 있다.

어린가지는 녹색 바탕에 흰 점(무늬)이 박히고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 떨어져 드문드문 1개씩 어긋나기(호생)를 한다.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없는 것을 민산초(*Z. schinifolium* var. *inermis* (Nakai) T. Lee)라고 하며 남부지방(전남지역)에 자생한다.

### ■ 산초나무 어린 줄기와 가지



### ■ 산초나무 굵은 줄기와 가지



### ■ 잎 - 기수1회우상복엽

잎은 새의 깃처럼 큰 잎자루(葉軸, rachis, 엽축, 작은 잎이 달리는 겹잎의 주축) 양쪽에 붙는 기수1회우상복엽(奇數一雙羽狀複葉, odd-pinnate unijugate leaf, 홀수한쌍깃모양겹잎)이다. 13~21개의 작은 잎(소엽)은 어긋나기(호생)를 하는데, 끝 쪽으로 갈수록 마주나기(대생)를 하고 끝에는 1개가 달려 기수가 된다.

소엽이 붙는 잎줄기(엽축)에 좁은 날개가 있고 위쪽으로 꼬부라지는 가늘고 짧은 가시가 있다. 소엽은 길이 1.5~2.0cm이고 피침형(披針形, lanceolate, 창날, 화살촉 모양)~타원상 피침형(긴 타원형)이다. 끝은 둔한 예두(銳頭, acute, 끝이 뾰족한 잎)이고 기부는 설저(楔底, cuneate, 밑 부분이 점점 좁아지면서 뾰족한 잎)이다. 가장자리는 얇은 파상형세거치(물결모 양잔톱니)가 있다.

## ■ 산초나무 잎



## ■ 꽃과 열매 - 산방화서

자웅이주(雌雄異株, dioecism, 암수딴그루)로서 꽃은 연한 황색(황록색)이고 8월에서 늦게는 9월 초 · 중순경까지 피는데 대부분은 여름에 핀다. 꽃이 부족한 여름에 개화하여 중요한 밀원식물의 하나로 취급된다. 단성화(자웅이화, 자웅일가화, 암수 다른 꽃)이며 가지 끝에서 길이 5~10cm의 꽃자루(꽃대)에 산방화서(繖房花序, corymb, 위가 평평한 모양으로 피는 꽃차례)로 핀다.

수꽃은 꽃받침조각(萼片, sepal)과 꽃잎이 각각 5개이고 암술은 퇴화하였다. 꽃잎은 3mm 정도의 난원형으로서 매우 작고 수술을 감싸듯 안으로 꼬부라져 있다. 5개의 수술은 곧게 서서 밖으로 노출된다. 암꽃 또한 꽃받침조각과 꽃잎이 각각 5개이다. 암술대(1개)는 짧고 암술머리가 3갈래로 갈라졌으며 씨방은 3~5실로 구획된다.

열매는 삭과(蒴果, capsule, 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고 각각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 익으면 껍질이 말라 쪼개지면서 씨가 튀어나오는 열매)로서 지름 4mm 정도이고 선점(샘점, 향기가 나는 샘)이 있다. 10월에 녹색에서 붉게 익는데, 노숙한 열매는 갈색이 된다. 익은 열매는 껍질(果皮)이 3갈래로 벌어지면서 윤기가 있는 검은 종자가 노출된다. 종자는 기름을 짜 음식의 향신료로 쓰고 녹색 어린 열매는 장아찌를 담가먹는다.

- 총상화서(總狀花序, raceme) : 긴 꽃대(화축, 주축)에 서로 어긋나게 붙은 여러 개의 짧은 화경(꽃자루)의 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는 꽃차례
- 산방화서(繖房花序, corymb) : 긴 꽃대(주축, 화축)에 붙은 여러 개의 화경이 밑의 것이 길고 위로 갈수록 짧아 꽃의 위가 수평이 되어 평면을 이루는 꽃차례. 즉, 바깥쪽 꽃자루는 길고 안쪽 꽃자루가 짧아서 위가 평면을 이룬다. 평면 바깥 봉오리가 먼저 피고 안쪽 봉오리는 나중에 핀다.



- 산형화서(傘形花序, umbel) : 긴 꽃대(주축) 끝에 작은 꽃자루가 우산살처럼 방사상으로 배열한 꽃차례
- 원추화서(圓錐花序, panicle) : 긴 꽃대(주축)에서 몇 차례 분지하여 총상꽃차례가 되며, 밑 부분의 꽃대가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져 전체가 원뿔형이 되는 꽃차례

■ 산초나무 꽃(8월 7일)



■ 산방화서 산초나무(8월 31일)



■ 산초나무 어린 열매(9월 24일)



■ 산초나무 열매와 꽃자루(주축, 10월 5일)



■ 산초나무 노숙 열매(10월 5일)



## (2) 초피나무

### ① 계통과 분포

- 학명 : *Zanthoxylum piperitum* Dc.
- 영명 : Piperitum Prikly Ash
- 한명 : 川椒(내 천, 후추 초)
- 분포 : 우리나라 전역, 일본, 중국

산초나무를 예기하는데, 함께 다루지 않으면 크게 서운할 나무가 바로 초피나무다. 초피나무는 전남, 경남북의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이다. 국소 자생지는 온도가 비교적 높은 산중턱의 양지바른 암석지대나 계곡이다. 남부보다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서는 자생하지 않아 음식의 향신료용으로 인가 주변에 1~2주씩 식재되는 나무다.

제주도에는 잎에 털이 많은 품종 털초피(*Z. piperitum* f. *pubescens* W. T. Lee)와 왕초피(*Zanthoxylum coreanum* Nak.)가 자란다. 왕초피는 수고 7m에 달하고 가지도 굵고 길다. 어린 가지에는 잔털이 있고, 소엽은 7~11개이며 길이 20~50mm로 대형이다.

### ② 형태적 특성

#### ■ 수형, 줄기와 가지 - 원개형 수형



초피나무는 수고 2~3m에 달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수형, 줄기, 가지의 형태적 특성은 산초나무와 유사하지만 가지에는 1cm 길이의 가시가 대생(마주나기)한다(산초나무 가시는 호생.). 가시의 기부는 넓고 납작하다. 줄기의 수피에는 회백색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1년생 가지는 녹갈색이고 2년생(전년도) 가지는 회백색~회갈색이며 가시가 대생한다.

■ 초피나무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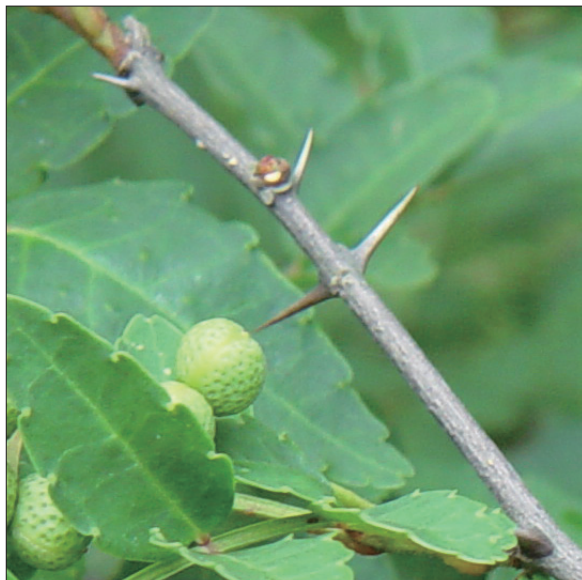
■ 초피나무 묵은 가지와 가시



■ 초피나무 1년생 가지와 가시



■ 초피나무 2년생 가지와 가시



### ■ 잎 - 기수1회우상복엽

잎은 큰 잎자루(엽축) 양쪽에 9~19개의 소엽(작은 잎)이 새의 깃털모양으로 호생(어긋나기)하는 기수1회우상복엽이다. 소엽은 털이 없는 난형~난상 타원형 또는 긴 난형이고 길이 10~35mm이다. 끝은 요두(凹頭, emarginate, 오목하게 들어간 선단부)이고 기부는 설저(楔底, cuneate, wedge shaped, 밑 부분이 점점 좁아지면서 뾰족한 잎)이다.

가장자리에 4~7개의 파상거치(물결모양톱니)가 있고 거치의 기부, 잎 정점(선단부)에 선점(腺點, pellucid dot, 기름 분비 점·샘, 유점)이 있어 향기가 강하다. 소엽은 주맥을 따라 좁은 황록색 무늬가 있고 향기가 있다. 엽축(葉軸, rachis, 큰 잎자루)에는 좁은 날개가 있고 잔가시가 있거나 없기도 한다. 엽축의 가시는 탁엽(托葉, stipule, 턱잎, 잎자루 기부 좌우 한 개씩 붙은 작은 잎)이 변한 것이다.

### ■ 기수1회우상복엽 초피나무

### ■ 파상거치와 요두 초피나무 잎 근경



### ■ 꽃과 열매 - 원추화서, 황록색(연한 황색)

자웅이주(암수딴그루)로서 꽃은 연한 황색(황록색)이고 5~6월의 봄에 핀다(산초나무는 8월의 여름에 핀다.). 꽃은 단성화(單性花, 홀성 꽃, 암꽃과 수꽃이 다른 꽃)이고 엽액(葉腋, 가지에 잎이 붙는 자리, 잎겨드랑이)에서 길이 20~50mm의 원추화서로 핀다.

수꽃은 암술이 퇴화하였으며 꽃받침과 꽃잎이 없고 화피(花被, perianth, 꽃덮개, 꽃덮이, 꽃잎과 꽃받침 구별이 어려운 경우의 명칭)가 있으며 수술이 5개다. 암꽃 또한 꽃받침과 꽃잎이 없고 5개의 꽃덮이(화피)가 있다. 암술은 2~3개인데 서로 떨어져 있고(이격) 머리가 둥글면서 도드라지며 연하게 붉은색이다. 암술 밑의 씨방 또한 서로 떨어져 있다.

열매는 선점이 있는 삭과(蒴果, capsule, 익으면 껍질이 말라 쪼개지면서 씨가 튀어나오는 열매)로서 직경 5mm 정도이고 10월에 녹색에서 붉게 익는다. 노숙 열매는 적갈색이다. 복봉선(腹縫線, ventral suture,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선, 열매가 익으면 2~3개 쪽으로 갈라지면서 씨앗이 노출되는 선)이 갈라지면서 3~4mm의 검고 윤택이 있는 종자가 노출된다. 종자와 껍질에서는 특유의 향이 있고 맛이 매워 혀를 마비시킬 정도다.



■ 초피나무 미숙 열매(6월 27일)



■ 초피나무 성숙 열매(10월 6일)



### (3)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구분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잎 모양, 개화시기, 화서, 익은 열매껍질의 색깔, 가시가 붙는 형태, 선점 등이 다르다. 초피나무 잎은 끝이 오목한 요두이고 산초나무는 둔한 예두이다. 잎 가장자리 거치의 기부에 선점이 있으나 산초나무는 없다. 가지에 붙은 가시는 대생하는데 산초나무는 호생한다. 초피나무 꽃은 봄에 피고 산초나무는 여름에 개화한다. 초피나무 열매는 붉게 익어 적갈색이 되는데 산초나무는 갈색으로 익는다.

■ 표2.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형태적 구분

구분	산초나무( <i>Z. schinifolium</i> )	초피나무( <i>Z. piperitum</i> )
자연분포	· 우리나라 전역의 산야	· 남부지방(전남, 경남북)
가시	· 호생 · 가지, 엽축	· 대생 · 가지, 엽축에는 있거나 없다.
소엽 (작은 잎)	· 피침형~타원상 피침형 · 둔한 예두, 설저 · 세거치(얇고 많은 거치) · 전면이 매끈하다.	· 난형~난상 타원형 · 요두, 설저 · 4~7개 거치(깊고 적은 거치) · 주맥을 따라 긴 황록색 무늬가 있다.
꽃	· 산방화서 · 8월 여름 개화 · 꽃잎, 꽃받침조각 각각 5개 · 수술이 노출된다. · 암술머리가 셋으로 갈라진다. · 씨방은 3~5실로 서로 붙어있다.	· 원추화서 · 5~6월 봄 개화 · 꽃잎과 꽃받침조각 없다. · 5개의 꽃덮이가 있다. · 암술 2~3개, 머리가 둥글고 붉다. · 2~3개 씨방이 서로 떨어져 있다.
열매	· 붉게 익는다. 노숙열매는 갈색이다. · 3갈레로 갈라져 종자가 노출된다.	· 붉게 익는다. 노숙열매는 적갈색이다. · 2~3갈레로 갈라져 종자가 노출된다.

#### (4)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쓰임새

##### ① 열매

###### ■ 추억의 산초나무 열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열매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맛과 쓰임새가 다르다. 산초나무는 주로 열매를 따서 씨앗으로 기름을 짜 식용하고 초피나무는 열매 껍질을 빻은 가루로 음식의 향신료로 쓴다. 산초나무 씨앗의 기름은 가을에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면서 검은 씨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채취하여 말린다. 열매를 말리면 껍질이 3갈레로 갈라지면서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까만 씨가 떨어진다. 말린 씨는 기름을 짜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나물을 무쳐먹을 때, 전이나 빈대떡을 붙일 때 콩기름이나 들기름 대용으로 쓴다. 또 약이 귀했던 옛날에는 벌레에 물리거나 긁혀서 생긴 상처에 바르기도 하였다.

산초나무 열매 건조는 별이 좋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말렸다. 요즘은 가볍고 넓은 비닐 천막을 깔고 곡식을 말리지만, 옛날에는 짚으로 짠 멍석에서 말렸다. 멍석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평소에는 둘둘 말아 보관하였다가 곡식을 말릴 때 펼쳐서 쓴다. 말릴 곡식을 깔기 전에 두 사람이 한쪽씩 끝을 맞잡고 작대기로 탁탁 두드려 멍석 골에 낀 먼지나 잡티를 털어낸다. 털다보면 붙어 있던 곡식 낱알이 떨어지기도 한다. 떨어진 낱알은 닭 모이가 된다. 그래서 멍석 터는 소리가 나면 의례히 닭들이 모여든다.

멍석에 곡식을 열어 말리는 날이면 닭을 쫓는 당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곡식을 헤집어 온 마당에 낱알을 흩어놓기 때문이다. 닭은 곡식이 무더기로 쌓였어도 발로 헤집고 흠트려서 낱알을 쫓아 먹는 습성이 있다. 흩어진 낱알은 모으기가 성가시고 멍석 밖 마당에 흩어진 낱알은 흠먼지 때문에 알곡이 되지 못한다. 흩어진 낱알은 모았다가 닭 모이가 되기는 하지만 아깝다.

닭 쫓는 일은 은근히 힘들다. 물론 힘을 쓰는 일이 아니고 그냥 뒷마루에 걸터앉아 다른 놀이를 하면서 힐끔힐끔 멍석을 바라보며 닭을 감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닭 쫓는 당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성가시고 지루함을 알 수 없다. 이 일은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잘된다. 닭들도 눈치가 있어 초창에는 별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키는 일보다는 놀이에 더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이틈을 놓치지 않고 귀신같이 와서는 포식하며 열린 곡식을 온 마당에 헤집어 놓는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닭도 안보고 뭘 했느냐는 꾸중이 돌아온다.

그런데 산초 열매 말리는 날이면 닭 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때만 해도 닭장에 가두어 키우질 않고 놓아기르던 시절이었다. 멀리서 멍석만 보고 곡식 열개인줄 알고 시속 100km(?)로 달려오다가 1~2m쯤 밖에서 미끄러지듯 급브레이크를 잡는다. 산초 냄새에 놀란 것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산초나무 멍석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한결 편했다. 닭들이 싫어하는 산초나무 열매가 사람에게에는 고급진 천연 향신료 재료가 된다.

###### ■ 헛갈리는 초피나무 열매

초피나무 열매는 입안이 마비될 정도로 아리고 톡 쏘는 맛이 강해서 기름을 짜지 않고 열매 껍질을 빻아 양념으로 쓴다. 초피가루는 「제피」라고 하여 민물고기 요리나 추어탕에 넣으면 미꾸라지 특유의 흠냄새와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돋운다. 추어탕을 먹을 때 제피(초피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먹지 못할 정도로 입안이 아려 혼이 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당량 들어가면 입맛을 돋우고 조금 과식했다라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 초피나무 잎 또한 말려서 가루를 내 제피와 동일한 향신료로 쓴다.

추어탕에 곁들이는 초피가루는 「초피, 진피, 제피, 켄피, 고초, 산초」 등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초피를 「진피, 제피, 켄피, 고초」로 부르는 것은 이해가지만, 「산초」는 산초나무가 별도로 있는데 초피를 산초라고 하니 헛갈린다. 초피

나무가 귀한 경상도 북부지방이나 강원도에서는 산초나무 열매를 말렸다가 통째로 빵아 제피 대용의 향신료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초피나무 전유물인 제피(가루)와 산초가 혼동된 것은 아닌가? 한 가설에 따르면 초피와 산초의 혼란은 일본의 영향일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초피 쓰임새가 우리보다 훨씬 폭넓고 적극적이다. 생선 요리에 빠지지 않는 향신료인데, 이 초피를 산초라고 부른다. 일본산 수입 초피에도 산초(山椒)라는 이름이 적혀있을 정도다. 이 용어의 혼란을 편하게 생각하자면 산(山)에서 나는 후추(胡椒), 자연에서 얻는 후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 ② 향신료와 장아찌

### ■ 향신료와 천렵

봄에 나오는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어린순은 튀김으로 하고 잎은 나물로 무쳐 먹는다. 잎이나 어린순을 밀가루 풀에 버무려 기름에 튀겨 먹거나 찹쌀 풀을 묻혀 튀각으로 먹는다. 잎은 전이나 빈대떡을 붙일 때 곁들이기도 한다. 전이나 빈대떡을 붙일 때 진달래 화전처럼 작은 잎 몇 조각을 올리거나 잎자루 채 올려서 굽는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빈대떡에 연녹색 산초 잎이 예쁘기도 하지만, 한 입 깨물면 입안에 산초(초피) 향이 가득 퍼진다.

산초나무나 초피나무 잎은 된장국에도 넣어도 향이 좋다. 말린 잎은 가루 내어 국을 끓일 때마다 조금씩 넣어 먹는다. 겉절이 김치를 담글 때에도 잎을 넣으면 향기와 맛이 한결 풍부해진다. 김장을 할 때에도 소량을 넣으면 오랫동안 시지를 앓는다. 그러나 초피나무 잎은 양이 많으면 오히려 맛을 버린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글 때 산초나 초피 잎 몇 장을 얹어두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장에서 향기가 난다.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근 향아리는 뚜껑이 시원찮으면 파리가 알을 싸 애벌레 구더기가 생기는데, 이것을 막아준다.

초피나무 잎은 돼지고기볶음에도 들어간다. 돼지고기는 기호에 따라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초피 잎을 넣으면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준다. 초피 잎은 강한 향기가 좋아 생선회 접시 바닥에 2~3장 깔거나 회 위에 올리면 향이 좋고 비린내를 잡아준다. 최근 남부지방에서는 초피나무 재배가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소개되고 있다.

말린 껍질은 진피(陳皮, 열매 껍질)라고 하여 물고기를 잡는데 쓰인다. 개울가에서 껍질이 붙은 열매를 돌로 찌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가 기절하여 둥둥 떠는데, 건지지만 하면 손쉬운 물고기 잡이가 된다. 때죽나무 열매도 이렇게 하여 천렵하는데, 물고기가 때로 죽는다고 해서 때죽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 ■ 산초장아찌

산초나무 어린 열매는 장아찌를 담가서 먹는다. 잘 익은 산초열매 장아찌는 씹을 때 오독오독 소리 나며 새콤한 맛이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그릇은 가뜩하게 비운다. 근무하는 골프장 카트로 주변에 산초나무가 있다면 올해는 산초장아찌 담그기에 도전해볼지도 하다.

산초장아찌는 9월쯤 덜 익은 녹색 열매를 송이 채 따서 담근다. 따기 전에 엄지와 검지로 열매를 짓눌러 흰 속이 빠져나올 때가 적당하다. 속씨가 단단하지 않아 짓눌릴 정도의 성숙도일 때가 채취 적기다. 열매가 너무 성숙하면 장아찌를 씹을 때 종자 껍질이 입안에 남아 식감이 떨어진다.

먼저 채취한 열매 송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꺼내어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데치지 않고 해도 된다.). 데친 열매를 찬물에 담가 식힌 다음 유리병에 넣고 양념을 만든다. 특히 초피나무는 채취시기가 조금 늦어 열매 성숙도가 높으면 물에 담근



채 1~2일 정도 냉장 보관하여 강한 향기를 뺀 다음 병에 넣는다.

양념은 송이가 잠길 정도의 양으로 하되, 「물 3컵 + 진간장 1컵 + 매실청 1컵 + 사과식초 1/2컵 + 소주 1/2컵 + 설탕 1/3컵」비율로 하여 끓여서 식힌다. 식힌 양념은 일반 장아찌를 담글 때처럼 맛을 보면서 농도를 조절한다. 식힌 양념을 병에 붓고 눌러서 열매가 잠기도록 하여 뚜껑을 닫는다. 약 2주 정도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양념을 따라내어 다시 끓여서 붓기를 2~3번 하면 숙성도가 높아지고 더욱 깊은 맛을 낸다.

## (5) 번식, 식재와 관리

### ① 번식

#### ■ 파종

산초와 초피나무는 종자번식을 시킨다. 10월에 열매 껍질이 벌어지면서 검은 종자가 노출되기 시작할 때쯤 채종하여 2~4일 정도 말린다. 채종한 종자는 직파하거나 종자와 모래를 1 : 2 비율로 혼합하여 노천매장(露天埋藏, 종자와 모래를 혼합하여 배수가 좋은 땅에 묻어 발아를 촉진시키는 저장법)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묘상은 왕겨로 피복하여 빗물에 유실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 파종 당년에 발아하는데 일부 종자는 2년에 걸쳐 발아하기도 한다.

#### ■ 삽목과 접목

삽목은 노지 삽목이나 상토 삽목을 하는데, 노지에서보다는 상토에서 발아율이 높다. 높이 20cm, 폭 1m 정도의 묘상을 만들고 상토를 채운 다음, 관수하여 충분히 포화상태가 되도록 한다. 노지에 삽목할 경우 배수가 원활하도록 고랑이 있는 둔덕, 즉 묘상을 만들어 삽목한다. 3~4월에 충실한 전년도 가지를 15cm 길이로 잘라 삽수를 준비한다. 삽수는 절단면이 마르지 않도록 물에 담그거나 발근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근촉진제를 희석한 용액에 담근다.

묘상에 비닐로 멀칭을 하고 삽수를 꽂는다. 삽수를 묘상에 바로 꽂으면 마찰로 인하여 절단면 가장자리의 수피가 벗겨지는 등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예인봉으로 구멍을 낸 다음 삽수를 꽂는다. 예인봉 굵기는 삽수보다 조금 더 크게 한다. 구멍이 너무 깊거나 넓어 삽수가 토양과 접촉하지 않으면 공극이 생겨 발아율이 떨어진다. 삽수는 지상에서 5~6cm 노출되는 깊이로 꽂거나 전년도의 잎이 붙었던 자국 2~3개가 나오는 높이로 꽂는다. 묘상은 마르지 않도록 관수관리를 한다. 묘상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묘상 폭에 맞추어 대나무나 철사를 휘어 비닐을 덮고 건조 방지, 보온, 그늘이 지게 한다.

채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목을 한다. 대목은 3~5년생 실생묘를 사용하고 접수는 당년생 가지를 이용한다. 접목 시기는 3월 중순~4월에 한다. 대목은 지상 5~10cm 내외에서 잘라 준비한다. 접붙이는 방법은 일반 무성번식법과 같다. 묘상은 그늘이 지도록 차광막을 덮어 보호한다.

## ② 생육적지와 관리

### ■ 식재지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생육적지가 비슷하나 온도 적응성이 다르다. 산초나무는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 산야에서 자라지만, 초피나무는 내한성이 약한 편이어서 남부지방에 자생한다. 양수로서 내음성이 약하기는 하나 큰 나무 밑에서도 많이 자라며,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는 개화와 결실이 불량하다.

두 수종 모두 낮은 산의 계곡 양지바른 비탈, 바위나 굽은 자갈이 있고 물기는 있으나 배수가 잘되는 숲의 가장자리에 자생한다. 토질은 비옥한 사질양토나 부식질이 많은 토양이 좋다. 두 소종의 이러한 자생지 환경을 고려하여 재배지를 선정하고 관리하면 실패할 우려가 낮다.

### ■ 전정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자연수형 그대로 가꾸기를 하되, 전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웃자란 가지, 복잡한 가지 솜기로 한다. 시기는 낙엽기~새순이 나오기 이전이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전연도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고 그 끝에서 꽃대가 나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를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결과모지(結果母枝, 결과지 1년 전의 가지, 열매를 맺는 새순이 나오는 가지)를 강하게 잘라주면 그곳에서 굽은 순이 나와 꽃이 풍성하게 맺히므로 열매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도 시비하면 개화량이 많아진다. 특히 산초나무는 꽃이 귀한 여름에 개화하여 더욱 반갑다. 연한 황색(연한 녹색)의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색채가 고급스럽다. 위가 평평한 산방화서의 꽃은 특이하기도 하고 그 위에 앉아 채밀하는 나비는 너럭바위에 앉아 부채질하는 신선과도 같아 부럽다.

### ■ 시비

경관수일 경우 별도의 시비관리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보다 많은 꽃과 열매가 맺힌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더 아름답으므로 약간의 시비는 필요하겠다. 비료는 정량계산이 편리하고 완효성인 고형복합비료를 쓴다.

묘상의 어린 묘목은 줄기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5cm 깊이로 1개를 시비하면 생장이 좋아진다. 근원직경 3~4cm의 어린나무는 줄기에서 20cm 이격한 3~4방위에 10cm 깊이로 고형복합비료 1개씩 묻어주면 충분하다. 이보다 큰 나무는 30~40cm 이격한 거리에 나무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15cm 간격으로 1개씩 시비한다. 열매 수확이 목적인 나무는 3~4월에 1회, 6~7월에 1회 연2회 시비하면 꽃과 열매가 풍성해진다.

### ■ 해충관리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향이 강해 대부분의 곤충들은 피하는 나무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에도 천적은 있기 마련이어서 호랑나비(*Papilio xuthus* L.), 긴꼬리제비나비(*P. macilentus* Janson), 산제비나비(*P. maackii* Ménétrière)가 두 수종(기타 운향과 식물)의 천적인 셈이다.

호랑나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날개가 호랑 무늬를 닮은 나비다. 호랑나비는 봄형과 여름형으로 발생하는데, 봄형은 4~5월, 여름형은 6~7월, 8~10월에 발생한다. 성충이 산초나무 잎에 알을 1개씩 낳는다. 부화한 애벌레는 잎을 갉아먹다가 가지에 매달려 번데기가 되어 월동한다. 이듬해 새잎이 피면 부화한 애벌레가 잎을 가해한다. 긴꼬리제비나비와 산제비나비 성충은 봄형이 4~6월, 여름형은 7~8월에 출현한다.

방제는 잎을 가해하는 유충을 대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면 방제된다. 다만 개체가 크기 때문에 살충제 살포량이 적으면 약효가 낮아 반 치사상태로 가지에 붙어 있거나 땅에 떨어져 기어다닐 수 있다.

#### ■ 꼬리날개(뒷날개)를 다친 긴꼬리제비나비



#### ■ 참고문헌

1. 윤주복. 2008. 나무 쉽게 찾기. 진선출판사(주). p. 200, pp. 524~525
2. 윤주복. 2010. 나뭇잎 도감. 진선출판사(주). pp. 152~153.
3. 임업시험장. 1973. 한국수목도감. 선문인쇄공사. pp. 105~106.
4. 조무연. 1987. 한국수목도감. 임업연구원. p. 255.
5. 홍성천, 변수현, 김삼식. 1987. 원색한국수목도감. 개명사. p. 310.
6.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 식물
7. 남상호 외. 1999. 한국곤충생태도감. pp. 19~27.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